

“NO 아베”... 제주, 日정부 규탄 ‘활활’

주말 도민대회 열려
경제보복 철회 촉구
영사관 앞 연일 시위
도민 불매운동 ‘격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제주민중연대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지난 10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8·10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4도를 맞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및 수출규제 조치 중단과 한일 군사보호협정 (GSOMIA)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60여명은 “NO아베, 강제징용 배상하라”, “아베는 한반도 침략 사죄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발언에 나선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준) 위원장은 “일방적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민중연대 등은 10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8·10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국에서는 ‘우리 일본’, ‘딸이 위안부로 가도 용서하겠다’는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후손들에게 적폐를 청산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도지부는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맞은편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강제징용은 사죄받고 경제보복 자행하는 아베정권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백색국가’ 제외라는 조유의 경제보복을 감행했다”며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총영사관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 28명이 매일 릴레이 1인 파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평화나비와 제주홍사단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제주YWCA

와 서귀포YWCA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아베정권의 한국을 향한 부당한 경제적 조치는 주변국들의 평화를 위협하며 경제를 무기로 발판삼은 제국주의로의 회귀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한 뒤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적극지지하며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특산품 홀대? 보호?... 애매모호

제주공항 면세점 ‘판매 안한다’ 입간판 논란
도민 “한심한 처사”... JDC “토산품협회 보호”

제주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가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특산품 판매를 안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면서도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드러내놓고 알려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원성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1일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에 있는 JDC면세점 앞에는 ‘JDC면세점은 제주특산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내걸려 있다.

제주여행을 왔던 김모(43·서울)씨는 “입간판을 보고 JDC가 어떤 기관인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것을 알았다”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면서 면세점도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간판을 세워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민 조모(36)씨는 “JDC 면세점 순이익이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 기여하지 못할 망정, 제주특산품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간판이나 설치하더니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제

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JDC가 매년 1000억원대의 수익을 얻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기업으로써 수익금의 지역환원을 먼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실제 JDC에 따르면 제주공항 내 국인 면세점은 지난 2002년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조2933억원의 순수익을 기록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1000억원대의 순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제주토산품협회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관광협회로부터 해당 내용의 공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진행된 사항”이라며 “같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관광협회와 협의 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석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입간판.

사진=독자 제보

불벌더위에 모기 자취 감췄다

보건환경연구원 채집결과
“서식환경 악화... 개체 감소”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잇따르면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6일 제주시 한경면에 설치한 유문등(誘蚊燈)에서 잡힌 일본뇌염 모기(19주차)는 평균 48마리다.

채집일별로 보면 14주차(7월 1~2일) 100마리, 15주차(7월 8~9일) 12마리, 16주차(7월 15~16일) 87마리, 18주차(7월 29~30일) 42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급격히 줄어든 수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모기 채집 개체수를 보면, 14주차 96마리, 15주차 129마리, 16주차 276마리, 17주차 54마리, 18주차 139마리, 19주차 160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모기는 23~28℃의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기준 낮 최고기온 33℃ 이상이었던 폭염 발생 일수는 총 4일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날씨나 주변 환경관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고유정, 재판 앞뒤 새 변호인 선임

전 남편을 살해해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첫 공판을 사를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재판을 맡은 제주시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불과 사를 앞두고 기존 국선 변호인에서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8~9일 고씨는 사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비난이 잇따르자 해당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

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고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시켜 재판을 준비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때는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실종 30대 중국동포 여성
고산 바닷가서 숨진채 발견

지난 8일 실종된 중국 동포 여성 김모(36)씨가 실종 4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바닷가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변사체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문 대조 결과 변사체는 지난 8일 대정읍 신도포구에서 실종된 김씨로 확인됐다”며 “사체 검안 결과 타살과 직접 관련지을 수 있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 등을 통해 명확히 사인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경찰관, 소방관, 자율방범대 등 총 822명의 인력과 헬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김현석기자

붉은바다거북 사체 발견

10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에서 국제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발견

된 붉은바다거북 사체는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암수 구분 및 나이 판단이 어려웠다. 제주대학교 김병엽박사는 사체가 붉은바다거북임을 확인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수출기업에게 청년인력 취업지원을 위한‘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출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24개월

□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에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18~39세의 미취업자 (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자세한 채용현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최대 2년(채용일 ~ 2020. 12. 31.) + 계속 고용시 추가 지원(1년)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결정 예정
- 지원 금액 :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 이상(보조 180만원, 기업부담 20만원 이상)
- ※ 청년 임금의 10% 및 4대 보험금은 기업부담임
- 행정 시 동 지역 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는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년) 종료 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2.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신청

□ 신청기간: 수시모집

□ 신청방법: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선정업체 목록 확인 후 워크넷에 직접 입사지원 신청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

□ 신청자격

- 연령기준: 만 18 ~ 39세(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시 참여 가능
 - 취업 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실업기간이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단,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 취업 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실업기간 상관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여 약정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 : 실업기간 상관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3.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알협 공고 제2019-01호

제주 시민의식함양지도사(3기) 모집 공고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역사·문화·힐링·인성 등 전인적통합교육과정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에 흐르는 제주의 정신을 살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제주 시민의식함양지도사 양성 교육(3기)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2일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연

1. 모집 인원 : 50명

2. 자격 기준

○ 기본 요건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제주도민의 의식 성장과 발전에 주역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자
- 우대 조건
 - 역사·인성·힐링·영상 분야 등 관련 경력 보유자
 - 자연·문화관광 분야 해설 경력자
 - 지역사회 활동 및 NGO 활동, 가이드 등 관련 경력 보유자

3. 신청서 접수 및 선발방법

- 접수 기간 : 2019. 8. 5(월) ~ 8. 30(금)
-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서: 제주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육-교육/강좌 또는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홈페이지 및 다음카페 공지

○ 접 수 처

- 전자우편 : baalhyup@hanmail.net
- 팩 스 : 0303-3130-2096
- 방문 및 등기우편 : (636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58(3층)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임) ※ 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 유효

○ 선발 방법

○ 선발 방법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실시 (개별면접은 전화로 할 수 있음)

○ 선발 확정 발표 : 2019. 9. 6(금) 개별 통지

4. 교육 과정

- 교육기간 : 2019. 9월 21일 ~ 12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1~6시, 총12차과정)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자연생태체험학습관2층 시청각실)
- 교육내용 : 기본소양(시민의식 함양지도사의 의미와 역할, 제주의 역사·문화, 친절·봉사 자세, 리더쉽), 웃음·인성·힐링·영상, 소통 및 전달력 강화 실습 등
- 교육비 및 교재 : 무료(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비에서 전액 지원)
- 수료조건 : 출석률 80%이상/ 시민의식함양지도 실습60점 이상

5. 기타 사항

- 수료 후 혜택 : 양성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받게 되며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한 보수교육 및 실습과정을 거친 후 시민의식함양지도사 민간자격증(등록번호 제2018-001099호) 수여 예정
- ※ 문의 사항 ☎064-733-1565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시민의식함양지도사 양성과정' 담당자